

중국 2004년 수입관세율 10.4%

수입관세품목 7475개로 늘어나 ... 화학비료 수입쿼터량 대폭 증가

중국이 2004년 1월1일부터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1%에서 10.4%로 인하한다.

중국해관총서(General Customs Administration)는 2003년 12월31일 관세율 조정 및 지역적 또는 양국세율협정 내역을 발표했으며 일부 수입관세품목에 조정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품목은 2003년의 7445개에서 2004년 총 7475개로 늘어나며, 총 2414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세율이 11%에서 10.4%로 인하됐으나 일반세율은 변화가 없다.

중국은 밀, 대두유 및 설탕을 포함한 총 10개 농산품 및 DAP 등 총 3개 화학비료에 대해 쿼터관세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 12월31일 중국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2004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수입쿼터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제품의 수입쿼터량이 2003년에 비해 상향조정되며,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쿼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화학비료 부문에서 DAP 수입쿼터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총 620만톤으로 이 가운데 국영무역이 469톤, 민간무역이 156톤을 차지하며, 비료 컴파운드 수입쿼터량은 5% 확대된 313톤으로 국영무역이 235톤, 민간무역이 78만톤을 차지한다. 또 Urea 쿼터량은 27.8% 증가한 230만톤으로 국영무역 및 민간무역이 각각 207톤, 23만톤을 차지한다.

2003년 화학비료 수입쿼터량은 DAP가 595만톤, 비료 컴파운드가 298만톤, Urea가 180톤에 달했다. 국영기업들의 수입쿼터량은 DAP가 476만톤, 비료컴파운드가 238만톤, Urea가 162만톤에 달했으며 민간기업의 수입쿼터량은 각각 119만톤, 60만톤, 18만톤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설탕 수입관세율을 2003년 20%에서 2004년 15%으로 하향조정하고, 209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잠정세율을, 24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화학저널 2004/08/24>